

쉽게 씌어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 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一九四二、六、三、

たやすく書かれた詩

窓の外に 夜の雨がささやいて
六畳の部屋は ひとの国、

詩人とは 悲しい天命だと知りつつも
一行 詩を書いてみるか、

汗のにおいと愛のにおいにほんのりと包まれた
送ってくださった学費封筒を受け取り

大学ノートを脇に抱えて
老いた教授の講義を聞きに行く。

思ってみれば 幼いときの友を
ひとり、ふたり、みな 失ってしまい

わたしは何を願って
わたしはただ、ひとり沈むのか?

人生は生きがたいというのに
詩がこのようにたやすく書けるのは
恥ずかしいことだ。

六畳の部屋は ひとの国、
窓の外に 夜の雨がささやいているが、

^{あかり}
灯火をともして 闇を少し追いやり、
時代のように来る朝を待つ 最後のわたし、

わたしはわたしに 小さな手を差し出して
涙と慰めで握る 最初の握手。

日本聖公会の退職司祭、井田泉と申します。

尹東柱とその詩を愛する者として、立教大学にその記念碑が建てられたことを心から感謝します。またそこに刻まれた尹東柱の自筆「たやすく書かれた詩」の下に、わたしの訳を用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大変光栄に思いつつ、恥ずかしくも感じています。

わたしは今からおよそ 40 年前、3 年間、立教大学文学部キリスト教学科の助手をしておりました。尹東柱が学んだ英文科は、当時キリスト教学科の隣にありましたので、たびたび行き来していましたが、その時は尹東柱のことを知りませんでした。

尹東柱を知ったのは立教大学を退職した翌年、1986 年の 6 月でした。伊吹郷さんの翻訳を手に入れてからまもなく韓国に行く機会がありました。そのとき、今ここにいらっしゃる大韓聖公会の柳時京司祭とお会いした後、尹東柱の詩集を買いたいと言いましたところ、奥さまの金香媛さんがわたしを教保文庫まで案内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こで『尹東柱全詩集』を購入したことが、わたしの人生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れ以来わたしは、尹東柱を裏切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って生きてきました。

立教大学の便箋に書かれた「たやすく書かれた詩」ですが、そこで尹東柱は「六畳の部屋はひとの国」と書いています。当時、大日本帝国は韓国を植民地支配して日本の一部としていました。彼はこの東京の下宿の六畳の部屋で、ここが「ひとの国」であること、自分を抑圧する国であることを痛切に感じていました。立教大学も「ひとの国」の一部でした。

彼はこの詩の最後に、漢数字で「一九四二、六、三、」と日付を書き込んでいます。「昭和 17 年」とは書かなかったのです。どうして「ひとの国」の元号を書く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当時としてはこれさえ危険なことだったと思いますが、ここに彼は自分の意志と決意を現していると思います。

尹東柱が立教大学を去ってから 83 年。彼を去らせてしまった立教大学が、ここに彼のための場所を用意しました。それは立教大学の名誉ではない。誇ることではない。懺悔の、悔い改めのしるしであると思います。

彼はこの詩を「わたしはわたしに 小さな手を差し出して 涙と慰めで握る 最初の握手」と結んでいます。彼の手を差し出す相手は、当時はここにはいなかった。「わたしはわたしに 小さな手を差し出す」しかなかった。しかし「最初の握手」と言いました。「最初」であって「最後」ではなかったのです。日本人であるわたしたちの、また立教大学の反省と謝罪の具体的な行動のなかで、彼はわたしたちにも今、手を差し出して握手しようとしてくれている、と信じます。

排外主義の強まる日本社会の中で、立教大学キャンパスに建てられた記念碑をとおして尹東柱詩人自身が、真理と平和、正義と愛をわたしたちに呼びかけ続けてくれることを信じ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일본성공회 은퇴 사제 이다 이즈미입니다.

윤동주와 그의 시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릿쿄대학에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기념비에 새겨진 「쉽게 씌어진 시」의 자필 아래, 여러 번역들 중에서 제 번역을 사용해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끄럽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3년 동안 릿쿄대학 문학부 기독교학과 조교로 근무하였습니다. 윤동주가 공부했던 영문과는 당시 기독교학과 옆에 있어서 자주 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윤동주라는 시인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윤동주를 알게 된 것은 릿쿄대학을 그만둔 다음 해인 1986년 6월이었습니다. 이부키 고씨의 번역서를 손에 넣은 뒤 곧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대한성공회의 유시경 신부님을 뵙고 나서 윤동주의 시집을 사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김향원 사모님께서 저를 교보문고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구입한 『尹東柱 全詩集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제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때부터 저는 윤동주를 배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릿쿄대학의 편지지에 쓰인 “쉽게 씌어진 시”에서 윤동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당시 대일본제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며 일본의 한 부분으로 편입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쿄의 하숙 “육첩방” 안에서, 여기가 “남의 나라”임을, 자신을 억압하는 나라임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릿쿄대학도 “남의 나라”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이 시의 마지막에 한자로 “一九四二、六、三、”이라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쇼와 17년’이라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찌 “남의 나라”의 연호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이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그의 의지와 결의를 봅니다.

윤동주가 릿쿄대학을 떠난 지 83년이 지났습니다. 그를 떠나게 한 릿쿄대학이 이제 그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릿쿄대학의 명예가 아닙니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참회와 회개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시를 이렇게 맺습니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 최초의 악수.”

그가 손을 내밀 상대는, 그때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라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초의 악수” 라고 했습니다. “최초”이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인 우리의 회개, 그리고 릿쿄대학의 반성과 사죄의 구체적 실천 속에서, 그는 지금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악수하려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배타주의가 강해지는 일본 사회 속에서, 릿쿄대학 캠퍼스에 세워진 윤동주 기념비를 통해 윤동주 시인 자신이 우리 모두에게 진리와 평화, 정의와 사랑을 계속 호소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